# 2025년도 전주,완주 종친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수여

2025년도 전주,완주종친회(회장 권이수)에서는 지난 8월 22일 권오신 장학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권성찬 군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 100만원을 수여하였다. 종친회에서는 장학생 신청을 도내 대학 및 종친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지난 7월 31일 마감한 결과 1명의 학생이 신청하였다. 우리 종친회 장학생 선발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3일 장학위원장 겸 현 종친회장 권이수, 부위원장 권오신 그리고 장학위원 9명으로 구성된 장학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평가한 결과, 전북대학교 치의예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권성찬(36世) 학생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주,완주 종친회에서 매년 수여하는 25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권성찬 학생은 소감을 통해 안동권씨의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훌륭한 치의과 의사가 되어 항상 약자 편에서 일을 보람있게 생각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권이수 회장께서 갑자기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불참했다. 권봉철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8월 22일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전주,완주 종친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매년 소정의 장학금을 꾸준히 기탁해 오시고, 올해도 변함없이 기탁하여 주신 권오신 고문(200만원)과 권명수 부회장(50만원)께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시는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장학회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권봉철 부회장 역시 50만 원을 기탁했으며, 향후 종친회 인재 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장학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기탁할 것을 약속하였다.

오늘 2025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권성찬(36世) 학생은 다문화 가정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물론 꾸준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근면 성실하고 성적이 우수하여 장학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발되어 오늘 종친회 회원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보람되고 뜻깊은 장학금 수여식을 갖게 되었다.

끝으로 권봉철 부회장은 앞으로 권성찬 학생은 전주,완주 종친회의 장학생으로서 안동권씨의 자부심과 종친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지역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하여 자신이 꿈꾸고 있는 희망과 포부에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동권씨 전주,완주 종친회는 앞으로도 훌륭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장학사업은 물론 종친회 발전과 회원들의 권리와 복리 증진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

권영춘 전주 완주종친회 총무이사

# 신중년이 당당하게 잘사는 법

## 변화 속에서 자신을 재정립하는 전략적 학습의 힘

권원희 (한국평생직업교육원 원장/36世 복야공파)

### 1. 변화의 문 앞에서 멈출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세상은 멈추지 않고 변화합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경제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사회 구조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신중년 세대에게 이러한 변화는 익숙함의 틀을 흔드는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설계할 것인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됩니다. 제가 한국평생직업교육원에서 만난 많은 신중년들은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너무 늦었어"라는 체념으로 물러서고, 다른 한쪽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라며 새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두 부류의 차이를 가르는 핵심에는 바로 메타인지가 있습니다.

### 2. 메타인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

메타인지는 '내가 어떻게 배우고 생각하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즉, 나 자신의 인지 과정을 한 발 떨어져서 살피는 힘입니다. 여기에는 두 축이 있습니다. 첫째, 메타인지 지식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더 나은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메타인지 조절은 계획을 세우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할 때 전략을 바꾸는 실행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작동하면, 우리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 3. 신중년에게 메타인지가 특별히 필요한 이유

신중년은 풍부한 경력과 삶의 지혜를 갖추고 있지만, 급격히 변하는 환경 앞에서는 새로운 배움과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학습 방향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주도성이 필수입니다. 메타인지는 그 자기주도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거나 기존 업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또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은 메타인지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역량까지 갖춘다면 신중년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성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4. 메타인지 능력을 기르는 생활 속 실천법

메타인지는 책상 위의 이론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반복적인 점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루의 활동을 돌아보는 학습·생활 일지를 작성해 보십시오.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이번 주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은 자기 인식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둘째, 궁금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말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생각의 뿌리를 탐색해야 합니다. 셋째, 토론과 대화를 자주 하십시오.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이면 사고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온·오프라인 학습을 병행하십시오. 온라인에서 이론을 익히고,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만나 실전을 경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5. '포기형'에서 '도전형'으로 변한 한 사람의 이야기

대구에 사는 58세 김 모씨는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구조조정이라는 큰 파도 앞에서 밀려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에 의욕을 잃었지만, 우연히 한국평생직업교육원에서 디지털 마케팅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스마트폰 앱 하나 켜는 것도 버거워했지만, 차근차근 배우면서 블로그 운영과 스마트스토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그는 같은 또래의 신중년들에게 디지털 활용법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기 시작하니 인생이 새로 열렸습니다." 김 씨는 메타인지의 본질을 이해하고 행했기에 평생직업의 길 위에서 새로운 인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 맺음말 : 두려움 대신 도전하라

메타인지는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중년의 생존 도구이자 성장의 나침반입니다.

오늘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작은 배움 하나가 내일의 큰 길을 열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작은 배움 하나가 내일의 큰 길을 엽니다.그 길 위에서 다시 빛날 준비가 되셨나요?"

# 안동권씨능우회 8월 격월 회의 개최

안동권씨능우회(陵優會: 회장 권오관) 주최 8월 격월 회의가 8월 12일 오후 6시 30분 안동시 옥동3길 40(옥동) '고봉삼계탕'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능우회 총인원 35명 가운데 27명이 참석, 높은 참석율을 보였다.

권기락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시조묘소 망배, 경과보고, 회장 인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기락 사무국장은 경과보고에서 지난 6월 10일 안동회관에서 6월 격월회의 때 회원 19명이 참석하였으며 7월 18일 능곡회 39, 40대 회장 이. 취임식에 회원 14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 자리에서 권오직 전 능우회장이 능곡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능우회는 능곡회를 위하여 격려금 20만원을 전달하자 능곡회는 능우회에 금일봉을 전달하는 등 서로 형제간의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어 권오관 회장은 인사말에서 "능우회 회의 때 자주 불참한 것은 사전 선약이 있어서 부득이 불참한 점 널리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입추가 지난 요즘 새벽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폭염도 멀지 않아 사라질 것으로 믿고 있으며 오늘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과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회장 인사말이 끝나자 권기락 사무국장은 이달 30일 오전 10시 능곡회 주최 복회(伏會)가 시내 암삼보트장에서 열릴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회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담을 나누며 삼계탕으로 저녁으로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졌다.

능우회는 격월제로 짝수 달에 모여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권영건 보도부장

# 2025년 제2차 상임위원회 개최

제2차 상임위원회가 8월 27일 11시 대종회 회의실에서 권영창 회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행완 사무총장 직무대리의 사회로 개회선언, 시조 태사공에 대한 망배, 대종회 업무현황 보고, 회장 인사말씀, 심의 및 토의 안건 순으로 개최되었다. 권영창 회장은 인사말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원근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상임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원만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한국족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에서 한국족보를 유네스코에 등재 후 추진하고 있는데, 안동권씨는 1476년에 한국 최초로 제작된 족보인 성화보(成化譜)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업무는 대종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끝났다.

권행완 편집국장

# 시조 태사공 영정 봉안을 위한 의견 수렴

**친애하는 100만 족친 여러분!**

우리 후손은 1,000여 년이 흘렀지만 시조님의 묘소 앞에서나마 시조님과 마주하면서 시조님의 모습을 흠모하고 그리워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종회에서는 시조 태사공 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시조 묘소 아래 명당에 영정각(影幀閣)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학계의 전문가와 국가표준영정 제작의 권위자이신 화백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제 100만 후손들이 추원보본(追遠報本)의 마음을 다하여 시조님의 영정을 영정각(影幀閣)에 봉안하여 후손 대대로 모시고자 하오니 댁내에 글, 그림 등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거나 가풍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등이 있으시다면 서슴지 마시고 대종회로 연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손 여러분의 따뜻한 숭조(崇祖)의 마음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종회 사무처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시조 영정 제작 및 규격**

○ 담당 화백 : 권오창 화백(동강궁중회화연구소)
○ 규격 : 가로 107cm, 세로 180cm

**♣ 시조 영정 봉안 의견 수렴**

○ 복식 : 문신복, 무신복, 평상복 등 ※모습 : 입상, 좌상 등 ※연령 : 장년, 노년 등

**안동권씨 대종회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 자문위원회**